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⑧ 조선왕조실록



이준훈  
포천시시장  
경기도문화원장

조선 태조 이성계로부터 제25대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를 세웠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로부터 제25대 철종(哲宗)까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실록(實錄)은 국왕 사후(死後)에 국왕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찬체(編年體)로 편찬한 역사기록이다.

오늘날 조선왕조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록은 국왕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찬체로 편찬한 역사 기록이다. 역대 왕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왕조사(正史)를 편찬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 정사로 기록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는 고려시대의 실록을 자료로 하여 편찬된 것이었다. 고려왕조실록은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실록은 국왕이 죽고 난 후에 실록청(實錄廳)이라는 임시기구를 중

심으로 만들어졌다. 실록청은 재상급의 고위 관료가 총책임자가 되고, 사관(史官)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다. 실록청에서는 국왕 재위 시의 모든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실록을 편찬했다. 이 때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여러 기관의 문서인 시정기(時政記), 사관들이 작성해 둔 사초(史草),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일성록(日省錄) 등의 기록과 개인의 문집 등이었다. 사초는 사관외에는 국왕을 포함해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국왕 생전에 국왕과 국사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고, 국왕 사후에는 실록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록을 엄격하게 선별되었다.

실록 편찬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사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찬 실무자가 1차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와 삭제해 거쳐 2차 원고를 만들었다. 이어 총책임자 주도로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한편 실록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처럼 정변을 통해 왕위에서 쫓겨난 왕의 실록은 일기라고 부른다. 또한 고종(高宗)과 순종(純宗)의 실록은 일제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선총독부 주도로 편찬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된 실록은 서울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지방의 큰 도시에 보관되었는데, 전주사고(全州史庫) 보관된 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은 일제강점기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 한일병합 이후 정족산(鼎足山, 강화도)과 태백산(太白山) 사고(景福洞)의 실록은 총독부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오대산(五臺山, 강원 평창) 사고의 실록은 일제가 반출하여 갔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작상산(作相山, 전북 무주)의 실록은 구황궁 장사각(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실록은 남한과 북한에서 오랜 기간동안 번역되어 각각 '조선왕조실록'과 '리조실록'으로 출판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말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흔탁한 세상은 인간의 마음의 표상일 따름인가



박정근  
단국대학교  
인문학과교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기 짝이 없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정권유지를 위해 작위적인 질서를 시민들에게 강요한 나머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억압받아 숨막히는 답답함으로 느끼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몹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가 꿈꾸어온 민주사회가 이거 밖에 안되는가 하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와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채 여당의 중심으로 점차 작용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은 통합당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야한다는 조언을 주게 되었고

“ 정치란 여야의 양당정치가 확립되어서 어느 한쪽의 독주가 불가능하도록 견제의 장치를 해야만 국민들은 과거의 독재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듯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70퍼센트가 넘는 이 시점에서 지리멸렬한 법 여권의 행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고는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하지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한국정치가 기초가 튼튼한 민주주의로 커나갈 수 있도록 양당제도의 확립이라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만 된다고 본다. 정치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신뢰가 있다면 좋은 충고는 듣기 싫어도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도량이 필요하다.

“ 보수신문에서는 지금의 한나라당의 독점적 우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슬데없는 훈수를 두려고 한다고 신경질적인 글들을 신문전면에 도배를 하고 있다. 그들은 범여당의 지리멸렬한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차라리 이대로 한나라당의 독주로 대신이 끝나는 것이 건강한 정치라는 식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치란 여야의 양당정치가 확립되어서 어느 한쪽의 독주가 불가능하도록 견제의 장치를 해야만 국민들은 과거의 독재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70퍼센트가 넘는 이 시점에서 지리멸렬한 법 여권의 행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고는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하지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교육에세이 39

친구 사이(7942)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인연 하세요. 시간은 빨리, 어느덧 1년 365일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절기로는 처제(秋夕)를 전하며 산신(山神)에서 녹음(綠陰)의 계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새 학년이 되어 서머하던 친구들도 이제 서로를 얼굴이 익숙해지고, 제법 오래된 친구인양 아주 가까이 지내라야 생각합니다. 아마도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3월 2일 개학식과 입학식에 이어 오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대단히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여러 학생들의 사람 됨됨이 교육, 즉 인성 교육과 교과 학습 지도를 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대단히 분주하시고 또한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사라는 우리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수시로 접하게 되는 사실이지만, 어느 사이에 5월말을 맞고 있다는 사실에 새

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육 공동체로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의미가 있는 날짜를 지정하여 '친구사이의 날'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1학기의 4월 2일(월)은 친구사이, 7월 9일(월)은 친구, 2학기의 9월 4일(화)은 친구사이, 11월 11일(일)은 나란히 나란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의 날'을 정하여 각급 학교별 학교실정에 맞는 '친구사리의 날'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의 날'은 우선 학생들 상호 간에 배려와 칭찬, 관심을 바탕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진솔한 교육관계를 형성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성교육의 아름다움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 형성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어거든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구에게서 받으려 기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하게 친구에게 먼저 베풀고 다가서십시오. 마음을 열고 가지 무성한 나무처럼 서로를 만들어 주세요.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친구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협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친구를 먼저 건네가게 하세요. 먼저 내미는 손길이 늘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친구라는 말 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정보다 소중한 것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정답게 지낸 친구는 아무리 수백 번 변신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다운 친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아름다운 친구, 학창 시절의 귀한 인연으로 소중한 우정 이어가길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준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포천시 경기도체육대회 7연패. Table with columns: 종목, 세부종별(점수), 입상 현황, 52회 성적.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sports like Taekwondo, Judo, and Badminton.